

# 2007년 충남 경제정책 운영방안

박한규 | 경제통상국장

세계화의 급진전으로 개방이 가속화 되고 세계경제가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하면서 대응력이 떨어지는 기업의 도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을 연평균 9.6%, 인도는 05년 8.4%·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중국·인도의 동반성장」 시대가 전개되고 있으며, 고용 없는 低成長으로 국가의 공적 부담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저성장(4.5%내외) 추세는 2010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평균수명 연장으로 2019년 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면서 「低출산·고령화」의 확대가 국가 경쟁력 저하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 충남은 적어도 경제지표상으로는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행정도시 건설 및 도청이전 등이 가시화되고 12년이전 입주가 계획되어 있어 국가 및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즉, 지난해 10월말 기준 수출은 320억불(전국의 12%), 외자유치 13억불, 기업유치 435업체, 세계제일의 디스플레이단지 총 9개단지 362만평 조성, 자동차 부품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R&D집적화센터 건립 등 권목할 만한 실적을 거두었다.

이런 결과로 몇몇 기업은 유사 이래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이는 기술력과 R&D투자의 결과임이 명백해 보인다. 이른바 무한 경쟁의 시대에 돌입했음을 의미하고 있다.

다만 생산성 차별화에 따라 북부권→서남부권, 대기업↔중소기업, 첨단→전통제조업간 경기의 양극화 현상심화와 도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장항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세해에는 서민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과 희망이 넘쳐나기를 기대하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5천년 전통의 농업도(農業道)에서 새로운 첨단산업도로 변모해가는 올해 우리 도 경제의 큰 방향을 소개해 보고자한다.

국내 경제의 장기 저성장(1.5%내외) 속에서도 우리도는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을 이룩하고 있으나 수도권규제 완화 움직임, 불안정한 노사관계, 高油價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저해요인들이 내재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도민 및 전문가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 ① 미래 성장 동력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주도
- ②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지속추진 및 생산적인 노사문화 육성
- ③ 외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도모
- ④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재래시장 활성화 등을

4대 정책 운영방안으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10대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민 의견	전문가 의견
1) 특화산업단지 조성 등 기업유치(23.1%)	1) 특화산업단지 조성 등 기업유치(52.7%)
2) 각종규제완화/행정절차간소화(22.3%)	2) 각종규제완화/행정절차간소화(23.6%)
3) 중소기업제품홍보/판로지원(21.1%)	3) 첨단 지식 산업유치/육성(14.5%)
4)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20.4%)	4) 중소기업제품 홍보/판로지원(7.3%)
5) 첨단 지식 산업유치 및 육성(12.9%)	5)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1.8%)

## 첫째, 전략산업의 World-Leading Industry 실현을 위한 분야별 대응방안을 착실히 추진하고자 한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현재 대만, 일본 등 경쟁국과 사활을 건 패널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S-LCD 8세대 라인(19억\$) 투자로 협력업체유치의 호기를 맞이하고 있다. 앞으로 아산의 디스플레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세계적 기술 표준화 주도, 협력업체 심적을 위한 입주단지 조성, 중소 협력업체 기술력 제고 위한 R&D 지원을 통해 디스플레이 宗土地 위상을 공고하게 다져나갈 계획이다

자동차 부품산업은 친안(R&D)~서산~서해안벨트(생산기지)에 산재해 있는 완성차(아산, 서산) 및 부품기업의 클러스터 구축으로 혁신역량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즉 완성차 생산공장(기아차) 유치, R&D 지원 등 인센티브로 부품업체 심적 및 기술력 제고시켜 중국시장을 겨냥한 고품질 부품공급기지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하고자 한다.

영상산업은 H/W(영상미디어센터 등) 확충, 관련인력 배출(21천명) 등 여건 향상에도 선도기업 및 일관제작 시스템 부재로 도내 창업기업, 인력의 역외 유출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만전을 위해 국내 5대 메이저 선도기업 유치, 핵심인력 양성체계 구축, 고급(美, 日, 英)기술과 저가생산기지의 틈새를 이용한 고급시장의 생산기지 역할을 정립해 나가하고자 한다.

석유 정밀화학산업은 대산을 중심으로 4개 대기업이 개별 입지하여 집적지를 형성(삼성토탈 95만평, 현대오일뱅크 84만평, 롯데 40만평, LG 37만평)하고 있으나 국가 기간산업으로 분류되어 SOC 등의 세계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며 추가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 이를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 도로·용수·전력 등 SOC와 생활문화 인프라의 획기적 확충으로 Total社(25억\$) 등 해외 투자유치의 여건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둘째, 산업입지의 체계적 적시 공급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금년들어 8개의 산업단지 243만평을 새로이 지정하고 보령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산여면적 32만평을 외국인 전용단지 및 국가 임대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적어도 공반이 부족하여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발을 돌리는 일은 없도록 해나갈 계획이며 이와 함께 오랫동안 지역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형·석분국가산단에 대해서도 조기 착공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셋째, 광역 경제협력과 특구 지정을 확대시킬 계획이다

먼저 전국 최초로 경기도와 「상생발전협약」을 체결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3대 협력사업을 차근차근히 추진해 이웃끼리의 혼한 다름에서 한 차원 승화시켜 새로운 협력을 통해 국가발전을 이끌어 내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점도지역 첨단산업단지 등 기존사업의 실제적 가시화를 도모하고 지속적인 협력사업 발판으로 실질적인 상생효과를 제고해 나가고,

충청권 경제협의체의 실질적 협력방안을 확대해 나가면서 점차 중국을 포함한 「황해권 사치단체 경제협의체」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해 요건 충족되는 지역 타당성 조사 및 지정계획을 수립(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하여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자유보장, 외부유치를 촉진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금년에 우선 기본계획 수립 및 자유무역지역 지정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지역특구 지정을 현재 3개 지구(금산 인삼헬스케어, 논산 딸기산업, 청양고추·구기자)에서 8개 지구로 확대 하는데 다양한 분야별 특구유형을 개발하고 지정해 나가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 넷째, 「科學立道」를 위한 과학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민간 주도로 산업체, 대학, 연구소, 도·시·군, 교육청, 과기부 과학문화재단 등 약 60여개 기관·업체가 참여한 과학기술문화 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과학기술 정책연구, 인력양성, 장비사용 등 협력·조정 효과를 제고해 나가고, 대덕밸리와 연계한 R&D 성과 정착을 위한 「Smart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대덕밸리 연구 성과분을 상용화·사업화하는 기초여건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40억원을 투입 칠감산스타파크, 서산 천문기상과학관, 홍성 궁리포구조류탐사과학관, 아산 장영실과학관 등 지역별 테마과학관을 건립하여 도민(청소년)의 과학 생활화로 지역 과학문화 수준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다섯째, 경쟁력 있는 벤처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산·학협력 영세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대학과 협력, 매년 20개 영세업체 「생산현장 기술어로」 해결해 나가고 천안밸리 POST BI 입주공간 확충을 지원, 창업에서 자립화까지 全週期的 기업지원, 창업성공률을 제고시켜 나갈 생각이며 창업보육업체 도내 정착체계 구축을 위해 기업유치 수준의 인센티브로 BI 졸업기업 도내정착 유도(年80개), 지속적 사후관리로 정착률을 제고(현재 57%→80%)해 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천안밸리 테크노폴리스를 조성하여 BI센터 졸업기업 입주, 국내·외 연구기관을 유치(포트로닉스 사례)하고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과 창업보육센터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여섯째, 전방위 통상지원을 통한 민선4기 수출 600억불 달성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수출에 있어 지난 95년 10억불 수준이던 것이 '05년 마침내 335억불을 돌파하여 “중남수출 300억불 시대”를 여는 쾌거를 이뤘다. 이런 성과는 세계 230여 국가와 비교한 때도 43위 국가 수준이다. 가히 ‘급강의 기적’을 이룬 것이다. 또한 '06년도는 400억불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무역수지는 130억불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지속시켜 민선4기 동안 수출 600억불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 KOITA와 공조하여 해외 로드쇼 등 마케팅 토탈지원 등을 통해 수출기업이 원하는 종합적인 지원으로 수출 경쟁력 제고함으로써 전략산업 글로벌 토탈 마케팅을 추진하고, 수출기업을 년 130여개씩 육성하여 2010년에는 수출기업 1,900여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서울사무소의 수출전진기지화 지속추진, BRICs 등 신규 해외시장 개척, 중국과의 교류강화 및 수출 촉진, 국제 Network

강화로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일곱째, 투자유치 시스템 혁신으로 외국인 투자수요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우수·전문인력 확보 등 내·과워 강화를 위해 우수인력 확보, 요원 역량강화, KOIRA 등 전문인력 적극 활용, 인사우대 등 인센티브 확대, 공무원 해외 파견 등 투자유치 일등 도를 향한 人的·시스템 토대를 확보해 나가고, 국내외 투자유치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력화 역점 추진을 위해 경제통상국을 경제 통상사로 승격시켜 외자유치를 전문으로 하는 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지형 외투자지역 추가지정 및 인센티브 제고를 위해 분양가 차액보조, 임대차액보조금 제도의 세부 지원 기준을 수립하는 등 외국인투자지역 분량소진에 따른 신규 투자 수요에 착실히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 여덟째, 기업·현장 지향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생각이다

먼저 도내 남부지역 기업민원의 신속한 해결 및 지역간 균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남부지소를 설치하고, 연간 집단 및 우량기업 200개 이상을 유지하여 2010년까지 1,000개 기업을 유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氣살리기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촉진등에관한조례 제정 및 기업사랑추진협의회 구성·운영, 기업사랑 촉진 및 정기적인 정책 자문 등을 통해 기업인의 사기양양과 기업가정신을 부활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유망중소기업, 선도기업을 년 30개 업체씩 지정 육성해 나가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기술혁신형 벤처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충남벤처」 3호(100억원), 「충남·경기 상생펀드」(500억원)를 집중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기업의 체계적 육성, 중소기업이 강점인 생산에만 전념하게 마케팅을 지원, 산업재산권 창출을 위해 개발초기단계부터 사업화까지 One-Stop 종합서비스 제공 및 기업특허 관리 지원으로 기업의 가치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아홉째, 산업인재가 일하고 싶은 일자리를 년 6만 여개씩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실업계 고등학교 취업 알선사업」 추진으로 수요공급 눈높이를 일치시키는 맞춤형 안정적 취업을 보장하고 「충남 인력수급 2020 비전」 수립하여 대학, 기업에 정보제공 등 미래 대비, 청소년 직장연수(체협) 프로그램 운영으로 직업탐색 능력개발과 자기소개 등의 취업기술 배양, 「산업서포터즈 사업」 추진으로 구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공공근로 인력지원 장기취업과 연계시켜나가고, 특히 「충남 IT엘리트」 양성으로 신성장 동력산업(기계·로봇, 바이오, 지능형 휴)의 인재양성을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국내·외 기업유치, 산업단지 조성, 고용촉진 등을 통해 연간 6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의 한국 투자 저해요인의 하나인 노사분쟁 해소를 위해 외투자 협상에 노조의 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강성노조의 부정적 시각, 투자기피 등 투자 분위기를 반전시켜 나가하고자 한다.

## 열번째로 지역·서민경제의 안정성장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재래시장 특성화」를 위한 경영혁신사업, 「지역상권 활성화 촉진사업」, 「재래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사업」, 지방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행정 다원화, 신재생에너지를 대체에너지로 상용화, 태양집적단지(Solar Park) 조성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세계 각국과 독자치단체는 기업유치를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내걸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 나가고 있다. 우리 도도 경쟁상대에 뒤지지 않는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고, 물류가 편리한 매력있는 공단을 조성하며 기업인에 대한 지역의 우호적인 여건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계획의 실천력을 담보하기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있는 경제활성화 대책회의를 분야별, 기관별로 확대 개편하여 매월 2회 정례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활력화 대책회의는 고유가, 환율하락 및 원자재 상승 등 삼중고(三重苦)로 인한 경제회복 둔화 우려 증폭, 저출산·고령화로 지역 및 국가의 경쟁력 하락은 물론 양극화 심화로 도역의 균형발전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경제문제의 복잡화, 법·제도적 절차 및 이해집단의 다원화로 문제 해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진단아래 경제 현안에 대한 신속한 논의와 조기해결로 추진력을 확보하고 진행상황을 총체적으로 검증해 가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강한 충남의 역동적 도정운영을 실현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함께 경제통상국을 경제통상실로 확대 개편하고, 투자유치담당관을 신설하여 전략적이고 공격적인 기업·외자유치를 해나가고 아울러, 서울·해외사무소 기능을 수출·외자유치의 전초기지로 전환하고, KOIRA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도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글로벌 경쟁 무대에서 세계최상의 지방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틀을 다지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